

광주시,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속도

빛그린산단내 선도기술지원센터·글로벌비즈니스센터 5월 완공 창업보육·해외마케팅·인력 양성 등 수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가 미래 역점 사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들이 완공을 앞두고 기반 구축 사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클러스터 내 기업 지원 시설인 선도 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5월 완공된다.

선도기술 지원센터는 연면적 1만906㎡ 규모로 기업에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비즈니스센터는 4889㎡ 규모로 창업 보육,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179종의 기술개발 장비를 구축해 부품기업 수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기업간 교류의 장으로 창업보육, 사업다각화,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의 핵심적 기능을 맡는다.

광주시는 이번에 건립되는 기반시설이 향후 빛

그린산단의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혁신을 촉진시켜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하나로, 부품기업 주안 아래 35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시행해 15건의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창출 461명, 66억 매출증대 등의 성과도 냈다.

시는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도 오는 7월 건물을 완공하고 인증·평가 장비 구축에 들어가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센터들이 가동되면 자동차 부품 산업 생산 혁신, 신규 투자 유치로 친환경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빛그린 산단 3만2989㎡에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개발, 장비 구축, 센터 건립, 기업 지원 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주 그린카진흥원을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



25일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산단 연구용지 내에서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기업 지원시설인 선도 기술지원센터(오른쪽)와 글로벌비즈니스 센터 조성 사업이 오는 5월 완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호남대 등 유수의 연구 기관들이 참여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이 완

료되면 자동차 관련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와 미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동차중심 융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출 선도 '글로벌 강소기업' 전남도, 7개 선정 육성

전남도가 '202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7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자격은 지난 2019년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면서 지난해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과 서비스 분야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면서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한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인 4년간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최대 2억원을 비롯 기업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 연간 3000만원 이내 지원과 함께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순선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기술력 있는 도내 유망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일하는 청년 '전·월세비' 걱정 덜어준다 매달 10만원씩 지원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지원대상으로 전·월세 거주 청년 500명을 선발키로 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만18세에서 39세 청년이면서, ▲도내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최고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한 청년은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기획관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에너지 관련 13개 기관 및 기업과 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2030 기업RE100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 시동...추진협의체 출범

에너지 기관·기업 등 13곳 참여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를 구현하려고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기관, 기업 등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했다.

협의체에는 에너지공단, 가스안전공사, 해양에너지, 수안에너지 등 5개 에너지 기관이 참여했다. 매일유업·오비맥주·코카콜라음료·세광전자·지

신방직 광주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 NHN,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뜻을 모았다.

기관·기업들은 현장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기업 RE 100을 실현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애로사항 해결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정책을 마련하고 공장이나 기관 건물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계적 실천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모두, 2035년까지 지역 전체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로 충당하고 2045년에는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59개 지역 사업장을 분류해 올해 13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두 RE 100 실현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진협의체는 한국형 RE 100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 기술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관, 기업들이 에너지 자립 정책 추진의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법무담당관에 전세정 변호사 임명

광주시는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신입 법무담당관(4급)에 전세정 변호사(51·사진)를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정 법무담당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15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대형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 법무담당관은 대법원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권익보호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왔다.

광주시는 시민의 권익을 변호하고 날로 증가하는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이 담당해왔던 법무담당관을 지난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김중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역량 있는 변호사 출신 법무담당관 임용으로 실무에 대한 총괄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선 7기 후반기 시민권익향상 정책과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 각종 정책과 사업의 완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